



한국의 의료환경, 싱가포르에서 답을 찾다.

: 의료서비스와 의료인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고 의료복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탐구

팀명 : 네살차이



Table of Contents

1

탐방 주제
탐방 주제를 선정한 이유 설명

2

탐방 목적 - 문제 제기
국내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

3

탐방 목적 - 대안제시
국내의 문제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대안 선정

4

탐방 지역
탐방지역으로 선정된 나라와 기관 소개

5

탐방 일정
6박 7일간의 탐방 일정

6

탐방 후 기대효과
한국형 모델과 미래 방향성을 연구, 제시

민주 : 간호사의 수가 많아졌는데도 의료인의 근무환경에 개선이 느려.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방법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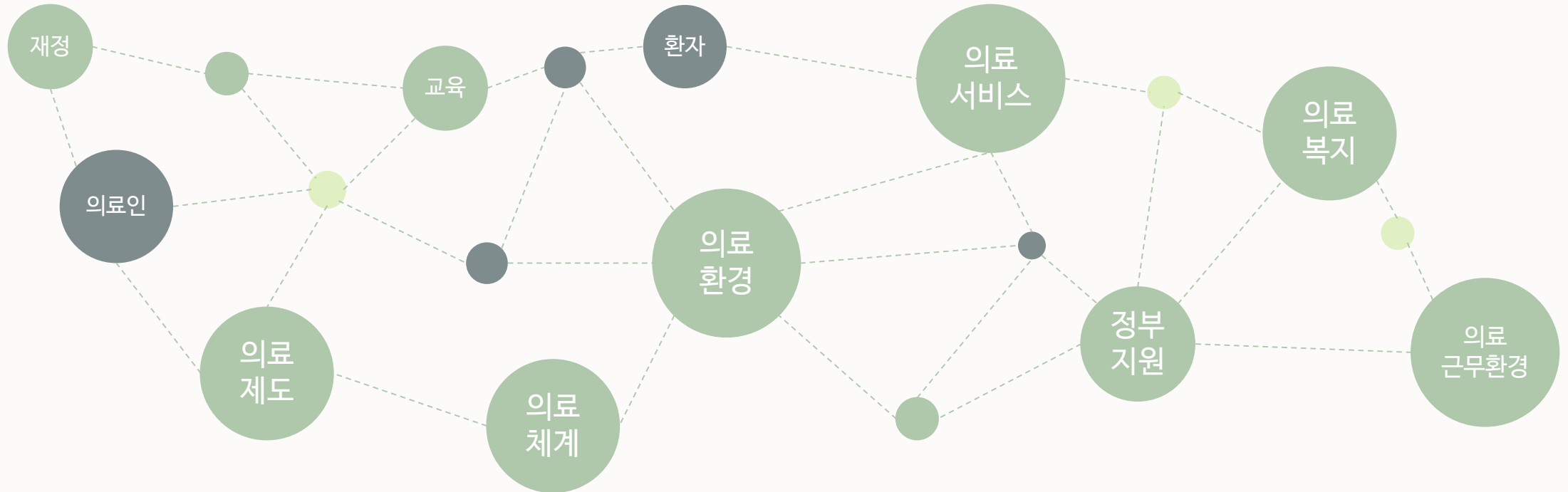
혜원 :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최고! 의료시스템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까?

채연 : 의료체계가 좋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으면 간호의 질이 높을거야.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?

예은 : 의료비 인상과 선택의료에 대한 제도 때문에 환자의 부담감이 높아졌어. 환자의 부담을 줄일 방법?

⇒ 미래 대처 방안과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에 관심

⇒ 의료서비스와 의료인 근무환경의 질을 높이고 의료복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미래 대처 방안을 탐구



⇒ 여러 문제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문제점들을 선정

1. 재정적자 - 더 적은 비용으로 적자를 내지 않는 방안을 찾아본다

-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이 6%인 한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.
- 해결을 위해 민영화를 시도하였으나 의료공급자와 수요자, 정부 사이의 대립과 반목이 심하다.

2. 의료서비스와 의료인의 근무환경 -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,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본다.

-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같은 비용을 내고도 서로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.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.
- 간호사는 의사의 하위 계급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간호사들의 입지가 좁다.
- 의료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의료서비스 교육이 미흡하여 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다르다.

3. 의료시스템의 활성화 - 진료비가 저렴하지만, 대기시간이 몇 개월씩 걸리는 영국과 다르게 저렴한 진료비를 부담하면서도 단기간에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는 조건들을 알아본다.

- 한국의 경우 진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몇 개월동안 대기하거나 다른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고, 입원할 경우 병실이 비어있는지 확인해야한다.
- 환자쏠림현상의 문제가 크다.
- 저렴한 대신 질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.

4. 취약계층 의료복지 - 모든 취약계층이 아닌,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통해 선정된 취약계층만이 건강보험 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의 모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다.

- 보건의 취약계층(어린이, 노인 등 면역력이 낮아 질병에 걸리는 횡수가 잦은 사람들)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, 성인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내고 더 자주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.

탐방 목적 - 대안제시

국내의 문제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대안 선정

1. 재정적자 - 더 적은 비용으로 적자를 내지 않는 방안을 찾아본다

- 국가에서 운영하는 영리병원 구축과 의료의 일부 민영화, 의료관광을 통해 재정을 확보
- 의료관광의 경우 각 대형병원에 마케팅부를 통하여 심장과 의료서비스를 전세계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을 유치
- 각 병원마다 특성화된 의료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쏠림현상을 예방한다.

2. 의료서비스와 의료인의 근무환경 -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와,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본다.

- 의료서비스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환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.
- 지원되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병원에 지시한다.
- 의사와 상담할 필요 없이 간호사들의 처치만을 받는 Nurse Clinician Service를 통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의료서비스의 중심축으로 끌어온다.
- 간호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며 단독으로 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해외 취업을 독려한다. 의료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의료인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
3. 의료시스템의 활성화 - 진료비가 저렴하지만, 대기시간이 몇 개월씩 걸리는 영국과 다르게 저렴한 진료비를 부담하면서도 단기간에 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는 조건들을 알아본다.

- 빠른 진료를 원한다면 높은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.
- 공공병원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에 일부 영리적 목적성을 띠게 한다. 이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정부 보조금을 늘려 민간인 의료 부담금을 줄인다.
- 각 분야에 따른 여러 클리닉을 지역 곳곳에 운영하여 환자쏠림을 방지한다. 이러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재정을 확보하며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을 줄여 만족도를 높인다. 또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와 의료 근무환경의 질을 높인다.

4. 취약계층 의료복지 - 모든 취약계층이 아닌,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통해 선정된 취약계층만이 건강보험 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싱가포르의 모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다.

- 연령이나 질병종류에 따라 다른 수준의 의료비 지원한다.
- 특정 보건 취약계층(유학생, 외국인 등)을 위한 특별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.
- 빈곤층의 경우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의료 보호를 시행하도록 한다.



나라 : 싱가포르 (Singapore)

동남아시아, 말레이시아 아래에 위치한 섬나라.
중국어와 영어를 주요 사용한다.

세계건강지수 2019년 8위 (한국 17위)
세계의료시스템효율순위 2016년 2위 (한국 4위)

한국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더 적은 국가재정으로 효율적인 보건체계를 만든 싱가포르.
지역보건과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와 전 세계적으로 의료에 대해 좋은 소문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.
한국의 의료환경과 '의료제도의 교과서'라는 말이 통하는 싱가포르의 의료환경을 비교하도록 할 것이다.



싱가포르 종합병원 - 국립 심장전문병원 운영 Singapore General Hospital

정부주도로 의료기관을 분화시킨 대표적인 국립병원.
 싱가포르 최대 규모이며 역사가 깊은 공공병원.

탐방목적 : 정부주도의 의료기관분화와 전문성 확보를 이해하고 전문병원의 시스템을 알아본다. 전문성을 띠는 의료기관 구성에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, 한국병원의 전문화, 의료기관분화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.



싱가포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(MOH)

싱가포르의 의료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꾼 보건복지부.
 병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세운 기관.
 의료정책과 의료서비스 교육을 활성화시킨 기관.

탐방목적 :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수준을 유지,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서비스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, 각 병원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. 특히 국립병원의 영리적인 제도와 비영리적인 제도를 융합시킬 수 있었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.



래플스 병원 Raffles Hospital Extension

싱가포르의 대형 종합병원 중 대표적인 민간병원.
 민간병원 중 의료관광과 마케팅부로 잘 알려짐.



탄톡생 병원의 여행자 건강 센터 Tan Tock Seng Hospital Traveller's Health & Vaccination Clinic (THVC)

국립병원 중 의료관광체계가 가장 잘 되어있는 병원.
 국립병원 마케팅의 성공적인 예시.

탐방목적 :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탐방하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조건을 알아본다. 또한 민간병원과 국립병원에서 실시하는 마케팅 효과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재정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본다.



탐방 일정
6박 7일간의 탐방 일정

08.10.
토

인천 국제공항 출발
오후 4시 25분 출발

08.11.
일

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, 호텔 이동, 자료정리 및 인터뷰 준비
오전 7시 30분 도착, 공항 무료 픽업 서비스 이용, 인터뷰 내용 확인

08.12.
월

싱가포르 종합병원 Singapore General Hospital, 심장전문병원 방문
숙소에서 약 40분 소요, 오후 중 방문 약속

08.13.
화

Ministry of Health(싱가포르의 보건복지부, MOH) 방문
숙소에서 약 45~55분 소요, 오후 일찍 약속



08.14.
수

래플스 병원 Raffles Hospital Extension,
탄독생 병원의 여행자 건강 센터
Tan Tock Seng Hospital Traveller's Health &
Vaccination Clinic (THVC) 방문

숙소에서 35분~40분 소요, 각 병원 사이 20분 소요 예정.
래플스 병원은 오후 일찍, 탄독생은 오후 3시 이후 예정

08.15.
목

인터뷰 내용 정리, 귀국 후 보완할 내용 설정

인터뷰 사진 및 내용 정리,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문화가 의료제도에 끼친 영향과 차이점을 파악

08.16.
금

싱가포르 창이공항 출발, 인천 국제공항 도착

오후 12시 10분 출발, 오후 9시 35분 도착



1. 재정적자 - 한국에 적용 가능한 의료민영화 모델을 설계하고, 제한된 재정의 활용법을 제시한다

-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의료민영화 모델을 제시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.
- 세금과 건강보험 형태로 확보하게 되는 제한된 수준의 재정을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, 의료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과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.

2. 의료서비스와 의료인의 근무환경 - 대형병원을 포함한 1, 2차 수준의 작은 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와 의료인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.

- 다른 수준의 병원에서도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을 제공하고 실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.
- 자립성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실용적 모델을 제시하여 민간병원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,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.
- 의료인의 근무환경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글로벌 사회에 맞도록 상호적 해외 취업의 방향성을 제시, 연구한다.

3. 의료시스템의 활성화 - 환자를 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, 환자과 의료인, 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연구하여 제시한다.

- 환자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하고,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찾아본다.
- 일시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킬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.
-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, 시범 운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.

4. 취약계층 의료복지 - 한국의 모든 계층에 적용할 복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.

- 제한된 재정으로 모든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본다.
- 의료복지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보건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지역별 복지에 초점을 두어 지역정부의 복지 방향성을 제시한다.

[관련사이트]

▶ 병원 정보, 클리닉 목록 : 싱가포르 보건부 (Ministry of Health, MOH) 사이트

<http://mservices.moh.gov.sg/eservices/clinicSearch.do>

▶ 싱가포르 병원 위치, 주소 : Google Map

<https://www.google.co.kr/maps/@1.3476336,103.7529208,12z?hl=ko>

[논문, 보고서]

▶ 싱가포르의 의료 정보(표 3-1-3 이미지 포함)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-보건의료-2011-41,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, 국제의료정보팀 (이름 명시되지 않음)

▶ 국내 보건의료 정책 정보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-2018-07,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, 황도경 안수인

[기사]

▶ 의료관광객 유치 정보 : 조선매거진 2010-04 [해외 르포] 싱가포르 의료현장을 가다, 年間 64만명(전 국민의 12%) 의료관광객으로 유치

<http://monthly.chosun.com/client/news/viw.asp?ctcd=&nNewsNumb=201004100036>